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허철수\* · 양민철\*\*

〈 목 차 〉	
<p>I. 서 론</p> <p>II. 이론적 배경</p> <p>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p> <p>2. 자아상태의 개념 및 유형</p> <p>III. 연구방법</p> <p>1. 연구대상자</p> <p>2. 측정도구</p> <p>3. 자료분석</p> <p>IV. 연구결과 및 해석</p> <p>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p>	<p>2.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p> <p>3.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상태 유형 분석</p> <p>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p> <p>V. 논의 및 결론</p> <p>참고문헌</p> <p>Abstract</p>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교류분석에서 성격 이론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아상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자아상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436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에 대해 질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자아상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으로는 자녀들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남원중학교 교사

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와 양육적 아버지자아(NP), 자유어린이자아(FC), 비판적 아버지자아(CP)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의존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지닌 순응어린이자아(AC)는 높아졌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의 특징을 지닌 어른자아(A)는 낮게 형성되었다.

이처럼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 개방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었으며, 특히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들의 자아상태에서 어른자아상태(A)를 높여주고, 순응 어린이자아(AC)를 감소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자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개방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 서 론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과 더불어 처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인간 형성을 위한 최초의 훌륭한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사람은 가정생활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가치, 태도, 규범을 내면화하고 주체 의식을 형성하며 인성발달을 이루게 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도의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된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천에 따라 가족의 구조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에서 비롯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애착으로 자녀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한 정신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편부모 가정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부족으로 자녀들의 심리적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명 N 세대라고 지칭되는 청소년 세대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만의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해 감에 따라 점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Eric Bern(1910~1970)에 의해 창안된 교류분석에 의하면 아동들은 어린 시절 부모들의 양육방식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어지며,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뇌리에는 아버지자아, 어른자아, 어린이 자아라고 부르는 세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어, 생활의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자아상태가 재현된다고 한다. 또한 교류분석에서 인간의 모든 적응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고 그 의사소통 과정의 분

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고 하고 있다. 즉, 건강한 부모의 역할의 결과로 자녀는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되지만, 반면 부정적인 부모역할행동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활자세가 자녀에게 형성된다고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우재현, 2003).

흔히 알려지기로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더 이상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덜 제한적이기를 바라고 부모를 구세대로 생각하여 대화를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Erikson(1959)은 청소년기의 특징으로 청소년들은 자유와 독립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이중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는 동시에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수용적인 지지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것이며, 부모-자녀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형태가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대화방식으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세대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갈등을 감소시켜 주며(장호선, 1986),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격 형성과 사회화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류분석에서 성격 이론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아상태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봄으로써 가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기능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자아상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유형

인간은 사회적인 틀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보편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특히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대인관계로 자녀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가치, 태도, 규범을 내면화하고 주체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욕구 충족 및 안정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Gross와 Knoll(1980)은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Knezevich(1975)은 의사소통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정보, 지식, 감정, 사상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정명희, 1988).

또한 Galvin과 Bronnmel(1986)은 가족의사소통 측면에서 의사소통을 하나의 “상징적 거래과정”이라고 보면서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눈맞춤, 몸짓, 움직임, 자세, 용모와 공간적 거리를 포함하는 모든 비언어적 행동들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최인경, 2001).

의사소통 유형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 이라기 보다는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서, 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Barnes와 Olson(1982)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수준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적이고 순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그것을 방해하는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은 메시지, 공감, 반영적 경청,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 등을 의미하며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환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여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상호간에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double-bind)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지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의사소통 가족치료자인 Satir(1972)는 아동에서부터 중·장년에 이르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제반 문제의 원인의 관련변인으로 가족간의 갈등과 무관심, 의사소통 단절을 꼽고 있다. Rueter와 Conger(1995)는 온정이 넘치고 지지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자녀의 의견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적대적이고 고압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와 자녀의 의견 불일치와 가정의 기능 마비를 불러온다고 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 2. 자아상태의 개념 및 유형

### 1) 자아상태의 개념

Eric Berne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내부에 세 가지 부분을 갖추고 그것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아상태라고 하며, 자아상태를 “사고, 감정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통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 가지 자아상태, 즉 아버지 자아상태(P)와 어른 자아상태(A) 및 어린이 자아상태(C)의 이 세 가지 성격 구성요소는 각각 분리되어 특이한 행동의 원천이 된다. 세 가지 자아상태는 Freud의 id, ego, superego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자아상태들은 일관성 있고 예언 가능한 순서로 발달한다(고명규, 1997).

개개인의 자아상태 P-A-C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실제면에서 알기 위한 기능분석은 아버지 자아상태 P를 더욱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CP(비판적 아버지 자아)와 NP(양육적 아버지 자아)로 나누며, 어린이 자아상태 C를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와 AC(순응한 어린이 자아)로 나눈다.

기능분석에 의한 각각의 자아상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아버지자아(CP)는 주로 비판, 비난, 질책을 한다. 양심이나 이상 모두 깊이 관계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살아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 등을 가르쳐주며 엄격한 면을 나타낸다. CP가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명령이나 지시 등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지배적인 언행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둘째, 양육적 아버지자아(NP)는 어린이 성장을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부분이며 동정적, 보호적, 양육적이다. 상대방이 원조를 필요로 할 때 부모처럼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며 따뜻한 말을 해준다. NP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윤희유와 같은 것으로써 상대방의 자립 또는 성장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 어른 자아상태(A)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컴퓨터에 비유되는 부분이다. A의 작용은 사실중심으로 관찰하여 데이터를 수집, 정리, 통합하는 것이다. 교류분석에서 가끔 A의 작용에 의한 인격의 통합이 시도된다. A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냉정한 부분이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같이 A는 지적으로 적응능력이 풍부해서 현실을 미룰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넷째, 자유로운 어린이자아(FC)는 누구에게나 구속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부분

으로 양친의 행실(품행)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FC는 감정적, 본능적, 자기중심적, 적극적이며 호기심이나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현실을 생각하는 일없이 즉석에서 쾌감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좋은 면에서 명랑하고 사양함이 없이 천진난만하고 화를 내더라도 오래가지 않으며 그 자리에 맞는 감정표현을 한다. 이 C가 적절히 잘 작용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매력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는 성장과정에서 양육자의 애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자연적인 자기를 억제하고 상대방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AC이다. AC는 순종형이고 참을성이 있어 '말을 잘 듣는 아이' 편에 속하므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나가는 것같이 보이나 실제의 자기를 항상 억제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숨기고 있다. 감정을 억압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든가 슬픔에 잠기기 쉬운 면이 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나타내기가 힘들어지므로 명랑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음울한 면이 어딘가에 보이게 된다. AC가 너무 높으면 간단히 타협이나 동의를 하지만 거기에 나타나던 호의는 가짜의 감정인 것이다. 그 이면에 가끔 굴절된 공격성이 감추어져 있다(김규수, 류태보, 2001).

## 2) 이고그램의 개념 및 유형

교류분석의 창시자 Bern의 수제자인 John Dussay(1977)에 의해 각각의 자아상태 각 부분끼리의 관계와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의 양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이고그램(Egogram)을 구안했다.

이고그램은 사람들 각자의 기능적 자아상태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 다섯가지 심리적 힘은 개인마다 그 양이나 균형이 다르게 정립되어 있다. 또한 이고그램은 나이, 발달단계, 생활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각자의 개성이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성격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P, A, C가 균형 있게 짜여지며, 자아상태들 간에 경계가 뚜렷하며, 경우에 따라 P, A, C간의 에너지 이동이 자유로우며, 특정한 자아상태에 쏠림이나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 건강한 성격이란 세 가지 자아상태가 모두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란 성격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 할 수 있다(고명규, 2003).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고그램 유형으로는 스기다 미네야스(1988)는 NP가 정점을 이루고, A와 FC가 높으며, CP와 AC가 내려가는 산형(山型)을 제시하고 있으며, Dussay(1984)는 서구인에 있어서 바람직한 이고그램 유형으로 A를 정점으로 하는 종형

(鐘型, Bell)과 심리적 에너지가 아주 적절하게 배분된 균형 잡힌 평형(平型)을 들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일시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불완전한 응답을 한 16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436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과 유형을 검사하기 위하여 1982년 Howard Barnes와 David H. Olson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인 PACI(Parent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척도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척도로 문항은 개방형 10개 항목과 폐쇄형 10개의 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III-1> 의사소통 유형의 신뢰도 검증

요 인	문 항 번 호	Cronbach's $\alpha$
부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0.90
부 폐쇄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0.74
모 개방형	1, 3, 6, 7, 8, 9, 13, 14, 16, 17	0.92
모 폐쇄형	2, 4, 5, 10, 11, 12, 15, 18, 19, 20	0.76

## 2) 이고그램 척도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Eric Bern의 교류분석에 근거하여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청소년용 이고그램 검사지(Ego-gram Check List)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이고그램 검사지는 5개의 자아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마다 10문항씩 모두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척도(5점 평정 척도)로 각 지표당 50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가 그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청소년의 자아상태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신뢰도 조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다음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자아상태의 신뢰도 검증

요 인	문 항 번 호	Cronbach's $\alpha$
CP	1, 6, 11, 16, 21, 26, 31, 36, 41, 46	0.63
NP	2, 7, 12, 17, 22, 27, 32, 37, 42, 47	0.73
A	3, 8, 13, 18, 23, 28, 33, 38, 43, 48	0.62
FC	4, 9, 14, 19, 24, 29, 34, 39, 44, 49	0.75
AC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0.62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해 나가면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라는 주요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상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상태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436명으로 남자가 222명(50.9%), 여자가 214명(48.1%)으로 구성하고 있다. 성별, 부모의 학력, 그리고 부모와의 평소 대화시간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분포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학생수(명)	비율(%)
성 별	남	222	50.9
	여	214	49.1
아버지 학력	중졸	55	12.6
	고졸	228	52.3
	대졸	153	35.1
어머니 학력	중졸	73	16.7
	고졸	271	62.2
	대졸	92	21.1
아버지와 대화시간	거의 안 함	114	26.2
	30 분 미만	148	33.9
	30분~1시간	110	25.2
	1시간 이상	64	14.7
어머니와 대화시간	거의 안 함	44	10.1
	30 분 미만	116	26.6
	30분~1시간	116	26.6
	1시간 이상	160	36.7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버지 228명(52.3%), 어머니 271명(62.2%)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이 대학교, 중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30분 미만이 148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이 26.2%으로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아버지와 30분 미만 대화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인 160명(36.7%)이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분~1시간이 26.6%으로 나타나 어머니와는 과반수 이상이 3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30분 미만은 26.6%, 거의 안 한다는 10.1%로 조사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2.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

### 1)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남녀 성별에 따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으로는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 남학생(M=32.05)이 여학생(M=30.8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여학생(M=37.66)이 남학생(M=36.1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구 분	남(n=222)		여(n=214)		전체(n=436)		t
	M	SD	M	SD	M	SD	
부 개방형	32.05	8.32	30.84	9.02	31.46	8.68	1.465
부 폐쇄형	27.69	6.48	27.76	6.72	27.72	6.59	-0.115
모 개방형	36.17	7.50	37.66	9.22	36.90	8.41	-1.850
모 폐쇄형	26.76	6.32	26.50	6.94	26.63	6.62	0.419

### 2)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모개방형 의사소통과 부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3> 부모의 교육수준과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

구 분	부개방형	부폐쇄형	모개방형	모폐쇄형
아버지의 교육수준	1.818	0.678	2.598	0.343
어머니의 교육수준	3.477*	0.347	3.502*	0.775

\* p<.05

### 3)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와의 대화시간에 따라 모든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버지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부개방형과 모개방형 의사소통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부폐쇄형,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라서도 부개방형 의사소통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모개방형 의사소통의 높아졌으며, 반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아졌다.

<표 IV-4>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

구 분	부개방형	부폐쇄형	모개방형	모폐쇄형
아버지의 대화시간	55.872***	11.655**	13.378***	3.733*
어머니의 대화시간	15.296***	12.113***	34.405***	8.553**

\* p<.05, \*\* p<.01, \*\*\* p<.001

## 3.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상태 유형 분석

### 1)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 유형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로는 남학생의 비판적 어버이자아(CP)는 30.38로 여학생의 28.33에 비해 높게 나타나 CP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양육적 어버이자아(NP)는 33.00으로서 남학생의 31.98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양육적 아버이 자아상태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IV-5> 성별에 따른 자아상태 유형

구 분	남			여			t
	n	M	SD	n	M	SD	
CP	222	30.38	5.05	214	28.33	4.83	4.325***
NP	222	31.98	5.38	214	33.00	5.20	-2.007*
A	222	30.81	4.84	214	30.24	5.05	1.106
FC	222	32.39	6.60	214	33.75	6.15	-2.225*
AC	222	30.28	5.12	214	30.79	5.57	-0.988

\* p<.05, \*\* p<.01, \*\*\* p<.001

2)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아상태와의 상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적 아버지자아(NP)와 어른자아(A), 자유어린이자아(FC)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판적 아버지자아(CP)와 양육적 아버지자아(NP)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어른 자아(A) 값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학생의 어른 자아(A)와 비판적 아버지자아(CP)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구 분	CP	NP	A	FC	AC
아버지의 교육수준	2.398	4.390**	5.549***	3.147*	0.539
어머니의 교육수준	3.384*	2.455	5.800***	2.599	2.138

\* p<.05, \*\* p<.01, \*\*\* p<.001

### 3)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자아상태와의 상관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이고그램의 각 하위척도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값과 양육적 어버이자아(NP)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른 자아(A)와 자유 어린이자아(FC)의 경우에도 아버지와 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아버지와 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순응 어 린이 자아(AC)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자아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역 시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양육적 어버이자아(NP)값이 높았으며, 또한 어른 자아(A)와 자유 어 린이자아(FC)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역시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자아상태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 표 IV-7>과 같다.

<표 IV-7>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구 분	CP	NP	A	FC	AC
아버지와 의 대화시간	3.411*	4.192**	8.545***	8.253***	3.002*
어머니와 의 대화시간	2.556	2.484	7.851***	8.259***	3.196*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상태의 하부변인에 모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버지 와의 대화시간'이었으며 이것은 평소 가정에서 아버지와 의 대화가 자녀들의 자아를 형성하 고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 모는 자녀들의 성장함에 따라 보호자로서, 동일시 대상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친구처럼 자 녀 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시사 해 주고 있다.

## 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관계

###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상태 분포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의 분포는 다음 <표 IV -8>과 같다.

<표 IV-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상태 분포

변 수	하위 요소	M	SD
의사소통 유형	부 개방형	31.46	8.68
	부 폐쇄형	27.72	6.59
	모 개방형	36.90	8.41
	모 폐쇄형	26.63	6.62
자아상태	비판적 아버지(CP)	29.37	5.04
	양육적 아버지(NP)	32.48	5.31
	어른 자아상태(A)	30.53	4.95
	자유 어린이 (FC)	33.06	6.41
	순응 어린이 (AC)	30.53	5.34

전체 응답값을 보면 부개방형은 31.46으로서 평균(30점)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인 반면, 모개방형은 36.90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자녀들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것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폐쇄형의 경우 부폐쇄형은 27.72로 평균보다 낮은 폐쇄성을 보였으며 모폐쇄형 역시 26.63으로 유사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 폐쇄성이 더 낮게 나왔다.

자아상태의 전체 응답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자유 어린이 자아상태(FC)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판적 아버지 자아상태(CP)는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9>와 같다.

<표 IV-9>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분석

변 수	CP	NP	A	FC	AC
부 개방형 의사소통	0.137**	0.325**	0.393**	0.224**	-0.171*
부 폐쇄형 의사소통	-0.001	-0.016	-0.184**	0.028	0.262**
모 개방형 의사소통	0.172**	0.298**	0.392**	0.205**	-0.088
모 폐쇄형 의사소통	-0.041	-0.002	-0.244**	-0.093	0.285*

\* p<.05, \*\* p<.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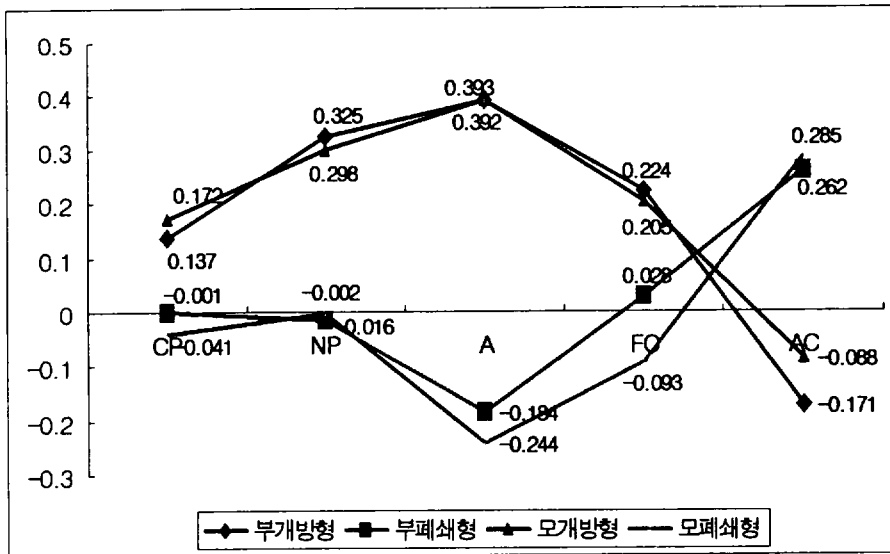
첫 번째, 부개방형 의사소통인 경우 모든 자아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른자아(A), 양육적 어버이자아(NP), 자유 어린이자아(FC), 비판적 어버이자아(CP)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순응 어린이자아(AC)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 부폐쇄형 의사소통은 어른자아(A) 및 순응 어린이자아(AC)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어른자아(A)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순응 어린이자아(AC)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각각 보였다.

세 번째, 모개방형 의사소통인 경우 순응 어린이자아(AC)를 제외한 어른자아(A), 양육적 어버이자아(NP), 자유 어린이자아(FC), 비판적 어버이자아(CP)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부개방형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모폐쇄형 의사소통은 어른자아(A) 및 순응 어린이자아(AC)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른자아(A)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순응 어린이자아(AC)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부폐쇄형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의사소통과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AC를 제외한 4개의 자아상태 하부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위(A)와 동정적이며 인간적인 어머니 같은 인성(NP)이 증가하였고,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성향(FC)이 높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행동(CP)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AC)은 반대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이성적, 합리적이며, 솔직하고 결단력 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결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폐쇄형 의사소통과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위(A)는 낮아졌고,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AC)은 높아졌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순응적인 어린이자아(AC)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순응적이거나 타협적이며 잘 협조하려는 특징이 있으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며, 타인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하며 자발성과 적극성이 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른자아(A)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에서 부모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양육방식'과 관계되며, 부모와의 폐쇄형 의사소통은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이것은 부모의 비합리적이며,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의 영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교류분석 이론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습득 시키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친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하고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상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들의 자아상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은 모든 의사소통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변수였다. 즉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증가할수록 개방형의사소통은 높아지고 폐쇄형 의사소통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평소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전체 가정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아상태의 하부변인에 모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었으며,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역시 어른자아(A), 비판적 어버이자아(FC), 순응 어린이자아(AC)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부모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은 자녀들의 전체 자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부개방형 의사소통과 모개방형 의사소통은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를 제외한 4개의 자아상태 하부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어버이자아상태(A)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적 어버이자아(NP), 자유 어린이자아(FC), 비판적 어버이자아(CP)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을 지닌 순응 어린이자아(AC)는 반대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어른자아(A)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이성적, 합리적이며, 솔직하고 결단력 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결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이 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어른자아(A)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Dussay가 제시한 A를 정점으로 하는 종형(Bell)과 유사한 유형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

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고그램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부폐쇄형 의사소통과 모폐쇄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하는 행위(A)는 낮아졌고,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부모에 대하여 의존하려는 성향(AC)은 높아졌다.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이 폐쇄적일 때, 자녀들은 순응 어린이자아(AC)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사에 순응적이거나 타협적이며 잘 협조하려는 특징이 있으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며, 타인의 눈치를 살핀다든지 하며 자발성과 적극성이 없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자아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한 조용현(1997)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그리고 가족이 화목할수록 자녀는 어른자아(A) 및 양육적 어머니자아(NP)는 높게 나타났으며, 순종하는 어린이 자아(AC)는 낮게 나타났으며, 유성희(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CP, NP, A의 자아상태가 발달 형성되고 반면에 통제적, 거부적 양육태도에서는 AC 자아상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들의 자아 발달과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자녀들이 지각하는 개방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아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들의 자아상태에서 어른자아상태(A)를 높여 주고, 순응 어린이자아(AC)를 감소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류분석적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 돕고자 할 때,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아상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그 대상을 고등학생 및 일반 청소년에게로 확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은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하여 쌍방향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만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므로 좀 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봉규(2002). **상담이론과 실제**. 교육출판사.
- 고명규(1997). 의사교류분석적 상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제18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규수, 류태보(2001). **교류분석치료**. 형설출판사.
- 김근화(2003).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운(2001). **중학생의 자아개념유형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유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희(1993). **의사거래 분석적 상담**. 이형득 편. **상담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유숙(2001).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김현수 역(1988). **교류분석**. 서울 : 민지사.
- 김홍용(1987). **가정환경변인과 생활자세와의 관계-교류분석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혜숙(2003).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학지사.
- 류태보(1996).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 기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상예(2000). **고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성자(1985).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홍익재.
- 스기다미네야스(1992). **교류분석**. 김현주역, 서울 : 민지사.
- 우재현(2003).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정암서원.
- 유성희(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순임 외 14인(1995). **현대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도영외(1999). **교류분석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장호선(198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심여자대학

- 교 교육대학원.
- 정문자(2003).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성란(2003). 의사거래 분석의 자아상태 활성화 프로그램이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영웅(1986). Transactional Analysis 상담을 통한 인간관계 개선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은정(2002).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자녀-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태권(1997).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용현(1997). 자녀가 지각한 가정환경 변인과 이코그램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정기(1998).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분석 이론 고찰. 부산여자대학교논문집 제45집, 부산여자대학교.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기선(1985).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나남.
- Adams, Bert. N(1980). *The family : asociological interpretation*. Houghton Millin.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6-447.
- Bern. E(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 Grove Press.
- Bern. E(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 Grove Press.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Dusay, J., Ego-grams. New York: *Harper and Row*, 1977, Other editions: New York: Bantam, 1980.
- Dusay, J.M(1977). *Ego-gram : How I see you and see me*. New York : Grove Press.
- Erikson, E.H(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Friedman, R. A.(1979). *transactional analysis as a theoretical change model with university student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 Galvin, K. & Brommel, B.(1982).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GlenviewIL ; Scott, Foresman and Co.

- Gorden, T.(1975). *PET :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 Goulding, R., and Goulding, M., *The power is in the patient*. San Francisco: TA Press, 1978.
- Gross, I. H., Grandall, E. W. and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 Hawkins, J. L. Weisberg, C. and Ray, D. L.(199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3).
- Heter, R.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to measure ego states with some applications to social and comparative psychiatry.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1979. 9.
- Knezevich(1975). S. J. *Administration of public education*. Harper & Brothers.
- Kennedy, C, 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513.
- Myer, G.E. & Myer, M.T.(1973).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 a laboratory approach*. McGraw Hill Inc.
- Olson, D. H., McCubbin, H. I., Bare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shing.
- Rueter, Martha A. & Conger, Rand D.(1995). *A i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7. ERIC Reports, EJ506221.
- Satir, Virginal.(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Their Ego-state

Hur Chul-soo\*, Yang Min-cheol\*\*

This study is to set the frame of parents' education to make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more functionally and openly and to provide the theoretical foundation in compromising the program for raising the level of adolescent's ego state by analy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recognized by child and the ego state which explains the structure of character theory in transactional Analysis.

This study was done through the questionnaire about the communication types and ego state on 436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verify the gap between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the child's ego state I produced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more children have conversation time with their parents the more they recognize it as open communication type, that they recognize it as closed communication type when they have less conversation time with their parents and that when the communication type with parents were open, they showed high of A, NP, FC, and CP.

Also when the communication type with parents were closed, they showed high of AC which is dependent and self-negative and low of A which is rationale.

Like this, in that the variation which plays the important role for adolescents at the age of puberty in open communication was th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the more they have conversation time with their parents the more they recognize it as open communication and the open communication type does things to promoting the A in the child's ego state and reducing the AC, to keep the sound ego state of child the open and intimate convers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should be made actively.

---

\* Professor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 Teacher at Namwon Middle School